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2. 1. 15 | 통권 제13호(2012-01) |

2011년 고용동향과 2012년 전망

[요약]

- 2011년은 성장률 수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함으로써 고용탄력성이 201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함.
- 2011년 11월까지 평균 고용률은 59.1%로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고용률 59.9%를 회복하지 못했지만, 연령을 15~64세로 국한하면 63.9%로 2007년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며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함.
- 2011년 큰 폭의 고용증가세는 50세 이상의 중고령층, 중소기업, 서비스업 부문이 주도하였으나, 8월 이후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1년 미만 근속자의 고용규모가 감소하여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채용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남.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2012년 우리나라 경제는 3%대의 상저하고형 성장률이 전망되는 가운데 고용증가 인원은 2011년 고용증가세의 기저효과로 26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금융위기 이후 고용은 성장에 따른 고용통계의 기저효과가 매년 작용하고 있어 2011년의 고용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2012년 고용증가 폭은 2011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임.

2011년 성장률 수준과 비교해 큰 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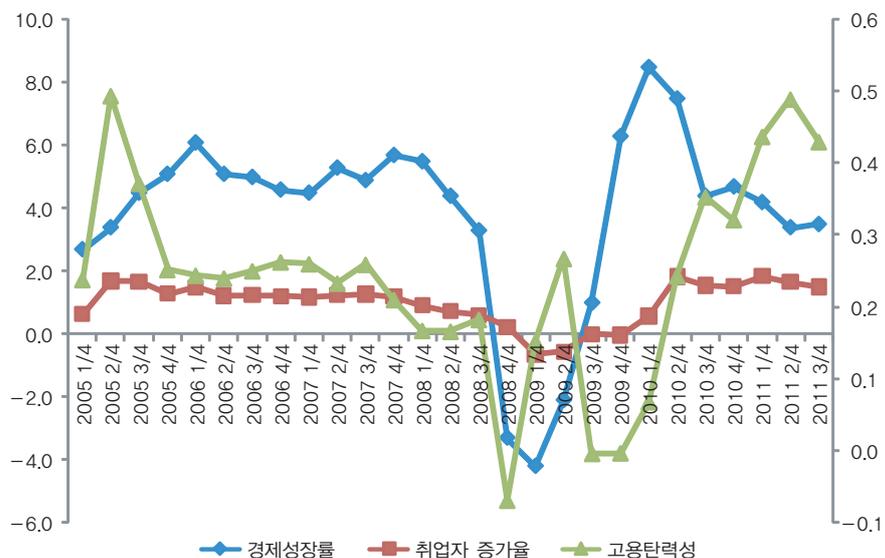
취업자 증가

- 2011년 경제성장률은 1/4분기 4.2%, 2/4분기 3.4%, 3/4분기 3.5%(잠정)로 나타난 반면, 취업자 수는 1/4분기 423천 명, 2/4분기 402천 명, 3/4분기 363천 명 증가함.
-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취업자가 몇 %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고용탄력성을 계산해보면 2010년 3/4분기 이후 이례적으로 높은 고용탄력성이 지속되고 있음.
- 다만 2011년 8월 전년동월대비 비정규직이 309천 명, 정규직이 13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볼 때 2011년 임금근로자 증가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추측됨. 2011년 3월에도 전년동월대비 비정규직이 273천 명, 정규직이 175천 명 증가했음.

- 2011년 11월까지의 고용률은 59.1%로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고용률 59.9%를 회복하지 못했지만, 연령을 15~64세로 국한하면 63.9%로 2007년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임.
- 2010년 동기에 비해 2011년 생산가능인구는 462천 명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취업자는 413천 명 증가하고 실업자는 62천 명 감소해 경제활동인구는 351천 명 증가함.
- 이와 같은 높은 취업자 증가의 영향으로 비경제활동인구는 110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2007년 이래 가장 낮음(0.7% 증가).
 - 분기별로 보면 2010년 1/4분기부터 비경황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해 2011년 2/4분기에 가장 낮은 비경황증가율을 보인 후 3/4분기에는 소폭 증가함.

〈그림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주: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은 좌측 축, 고용탄력성은 우측 축, 자료: 통계청, KOSIS.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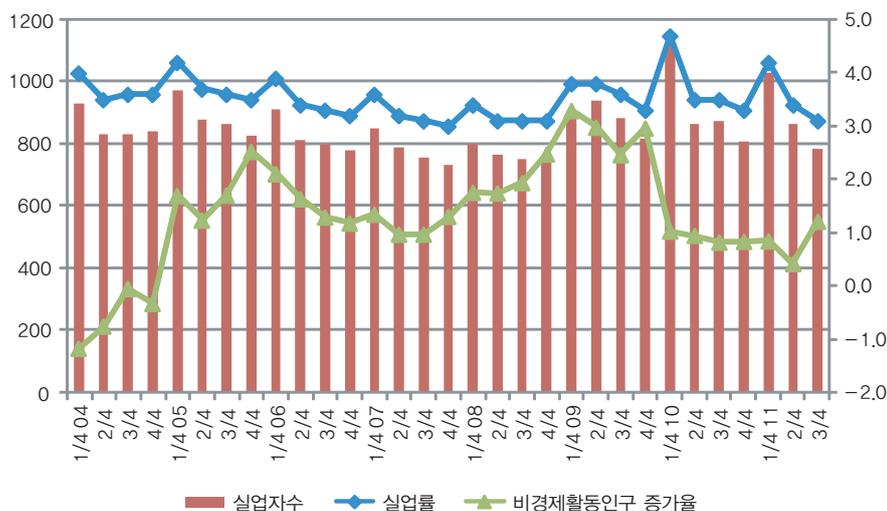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07 (1-11)	2008 (1-11)	2009 (1-11)	2010 (1-11)	2011 (1-11)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39,170 (1.1)	39,598 (1.1)	40,092 (1.2)	40,590 (1.2)	39,154 (1.0)	39,579 (1.1)	40,072 (1.2)	40,570 (1.2)	41,032 (1.1)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24,216 (1.0)	24,347 (0.5)	24,394 (0.2)	24,748 (1.5)	24,236 (1.0)	24,375 (0.6)	24,424 (0.2)	24,768 (1.4)	25,119 (1.4)
취업자 (증가율) (증가수)	23,433 (1.2) (282)	23,577 (0.6) (145)	23,506 (-0.3) (-72)	23,829 (1.4) (323)	23,449 (1.2) (283)	23,608 (0.7) (159)	23,531 (-0.3) (-77)	23,842 (1.3) (311)	24,255 (1.7) (413)
참가율 (남성) (여성)	61.8 (74.0) (50.2)	61.5 (73.5) (50.0)	60.8 (73.1) (49.2)	61.0 (73.0) (49.4)	61.9 (74.1) (50.3)	61.6 (73.6) (50.1)	61.0 (73.1) (49.3)	61.0 (73.1) (49.5)	61.2 (73.2) (49.8)
고용률 (남성) (여성)	59.8 (71.3) (48.9)	59.5 (70.9) (48.7)	58.6 (70.1) (47.7)	58.7 (70.1) (47.8)	59.9 (71.4) (49.0)	59.6 (71.0) (48.8)	58.7 (70.1) (47.8)	58.8 (70.1) (47.9)	59.1 (70.5) (48.2)
실업자 실업률 (남성) (여성)	783 3.2 (3.7) (2.6)	769 3.2 (3.6) (2.6)	889 3.6 (4.1) (3.0)	920 3.7 (4.0) (3.3)	787 3.2 (3.7) (2.6)	768 3.1 (3.5) (2.6)	894 3.7 (4.1) (3.0)	926 3.7 (4.0) (3.3)	864 3.4 (3.6) (3.2)
비경황 증가율	14,954 (1.2)	15,251 (2.0)	15,698 (2.9)	15,841 (0.9)	14,918 (1.1)	15,204 (1.9)	15,647 (2.9)	15,803 (1.0)	15,913 (0.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2〉 실업자 수,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 연령대 고용률 상승

- 2011년 고용성과는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볼 경우 주로 50대가 주도(287천명 증가) 하였으며, 20~30대의 취업자 수는 감소했는데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임.
- 청년층의 경우, 고학력화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학 중인 15~24세를 제외하면 25~29세 고용률은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동기보다도 1.3%포인트 높은 69.7%로 상승함.
- 40대와 50대의 고용률도 2007년 동기보다 높는데, 특히 50대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음.
-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수명 연장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을 보이지는 않음.
- 학력별로 보아도 남성의 경우 전 학력대에

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여성은 전문대졸을 제외한 모든 학력에서 고용률이 증가함.

상용직 중심 취업자 증가 지속 및 8월 이후 자영업 증가세로 전환

-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온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 추세는 2011년에도 이어졌으나 2010년에 비해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2008년 이래 꾸준히 감소했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2011년 8월부터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기 시작하여 4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임.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주로 50세 이상의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도소매업(주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 음식숙박업(주로 음식점 및 주점업) 등 생

〈표 2〉 연령계층별 고용률 및 취업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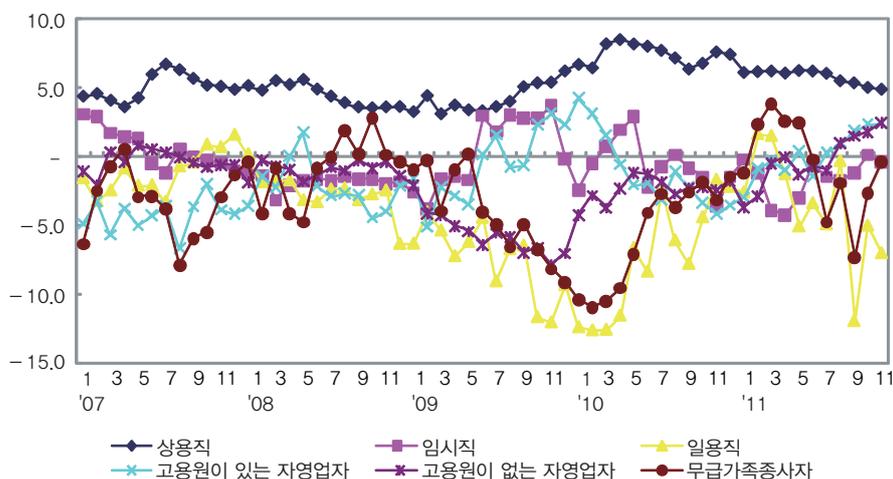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취업자 수						고용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2007	2008	2009	2010	2011
15~24세	1,530	1,419	1,360	1,375	1,387	12	25.8	24.0	22.9	23.0	23.1
25~29세	2,681	2,676	2,598	2,543	2,496	-47	68.4	68.6	67.5	68.2	69.7
30~39세	6,033	6,014	5,838	5,832	5,786	-47	72.8	72.9	71.3	72.0	72.1
40~49세	6,481	6,547	6,527	6,552	6,610	58	78.3	78.4	77.7	77.8	78.4
50~59세	4,090	4,299	4,492	4,786	5,073	287	69.7	70.7	70.4	71.0	71.6
60세 이상	2,635	2,652	2,716	2,754	2,904	149	38.4	37.5	37.1	36.2	36.8
전 체	23,449	23,608	23,531	23,842	24,255	413	59.9	59.6	58.7	58.8	59.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11월.

〈그림 3〉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계형 서비스업 창업에 집중되어 있음.

- 20대 연령층의 고용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대 자영업자 또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내수산업을 중심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드대란, 국제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때마다 자영업자의 고용은 감소함.

- 2011년 8월 이후 자영업자의 고용증가세는 주로 50세 이상의 중고령층과 20대 청년층이 주도함.

■ 우리나라에 불어 닥친 IMF 외환위기, 카

〈표 3〉 자영업자 고용변동이 컸던 시기별 연령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고용규모							고용증감				
	1997	1998	2001	2002	2003	2008	2009	'97-98	'01-02	'02-03	'08-09	'11.8~11 평균
전 체	5,901	5,616	6,051	6,190	6,043	5,970	5,711	-285	140	-148	-259	96
20세 미만	20	17	15	14	16	10	9	-3	-0	2	-1	-2
20~29세	431	390	326	323	310	228	203	-41	-3	-13	-25	20
30~39세	1,700	1,547	1,509	1,469	1,385	1,022	916	-153	-40	-83	-106	-78
40~49세	1,717	1,664	1,931	2,016	2,031	1,887	1,763	-52	85	16	-124	-19
50~59세	1,119	1,093	1,165	1,220	1,198	1,530	1,572	-26	55	-22	42	96
60세 이상	915	906	1,104	1,148	1,102	1,293	1,248	-9	44	-47	-46	7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제조업 부문 8월부터 고용감소세로 전환

-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경기가 차츰 회복됨에 따라 2010년 1월을 기점으로 고용증가세로 전환됐던 제조업 부문에서 2011년 8월부터 고용감소세가 지속·확대됨.
- 특히 상용직 주도의 고용증가세를 유지해 온 제조업 고용은 2011년 10월부터 상용직도 고용감소세로 돌아서 11월 현재 제조업 상용직은 20~3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5천 명 감소함.
- 반면 서비스업 고용(2011년 1~11월 평균)은 전년동기대비 379천 명 증가하여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을 상회함.

- 그러나 최근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업종은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됨.

중소기업 주도의 고용증가세 지속

-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의 고용(2011년 1~11월 평균)은 전년동기대비 369천 명 증가하여 2010년 354천 명, 2007년 345천 명을 상회하였으며, 2010년 고용감소세를 보였던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고

〈표 4〉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2007	2008	2009	2010	2007. 1~11	2008. 1~11	2009. 1~11	2010. 1~11	2011. 1~11	2010. 11	2011. 11
전 체		282	145	-72	323	283	159	-77	311	413	303	479
산업 별	제조업	-42	-52	-126	191	-45	-44	-136	183	77	284	-85
	(제조업 상용직)	60	9	10	184	62	11	8	173	121	313	-25
	서비스업	356	260	179	200	356	268	174	204	379	32	525
	(서비스업 상용직)	294	305	360	502	295	308	344	511	474	392	536
	보건업 등	59	103	156	155	58	100	156	153	165	157	113
	도소매업	-38	-41	-32	-20	-40	-40	-36	-17	53	-44	109
	운수업	54	1	-1	33	57	5	-5	35	51	11	64
	교육서비스업	38	44	48	-33	40	44	46	-24	-121	-127	-20
공공 여부	건설업	16	-37	-91	33	18	-36	-95	34	-12	50	66
	공공행정	-5	43	191	-71	-8	47	195	-76	-10	-129	-49
	민간	287	101	-263	395	291	112	-272	387	423	432	52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용은 44천 명 증가함.

- 사업체규모별로 살펴보면 1년 미만 근속자가 전년동기대비 124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요 측면에서의 채용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저조했던 것으로 확인됨.

2012년 취업자 수 26만 명 내외 증가 예상

-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3.8%를 기록하더라도 고용 사정이 상당히 좋았던 점을 고려하면 2011년 고용탄력성은 0.4(2010년 0.22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3/4분기까지의 경제성장률은 선진국의 경기둔화와 유럽의 재정위기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3.7%를 기록하여 당초 예상했던 4~5%에 미치지 못함.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2012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위축될 것이며,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구체화된다면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면서 상저하고형 3%대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2012년에는 3%대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수준에 크게 밀돌아 전년대비 26만 명 내외일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고용창출력은 2011년에 비해 크게 하락하게 되며, 고용률은 2010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표 5〉 2012년 고용지표 전망

(단위: %, 천 명)

	2011년			2012년		
	상반	하반 p	연간 p	상반 p	하반 p	연간 p
경제성장률	3.8	3.8	3.8	3.4	3.8	3.7
생산가능인구	40,938	41,165	41,051	41,401	41,628	41,514
경제활동인구	24,602	24,895	24,748	24,963	25,214	25,088
경제활동참가율	61.0	61.3	61.1	61.0	61.3	61.0
취업자	24,016	24,449	24,232	24,294	24,690	24,492
(증가율)	1.7	1.6	1.7	1.2	1.0	1.1
(증감수)	412	395	403	279	241	260
실업자	947	765	856	940	827	884
실업률	3.8	3.0	3.4	3.7	3.2	3.5
고용률	58.7	59.4	59.0	58.7	59.3	59.0
비경제활동인구	15,976	15,951	15,963	16,167	16,111	16,139
(증가율)	0.6	0.9	0.8	1.2	1.0	1.1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2012년 경제전망」, 2011.12.

비경제활동인구가 올해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국제금융위기 이후 고용은 성장에 따른 고용통계의 기저효과가 매년 작용하고 있어 2012년은 2011년의 고용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고용 성적은 2010년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임.
- 국제금융위기가 불어 닦친 2009년의 고용감소는 희망근로 등의 공공정책 실시로 전년대비 71천 명 감소에 불과하였으며 2010년에는 6.2%의 경제성장

에도 불구하고 2009년의 기저효과로 323천 명 증가에 그침.

- 2011년 3%대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0년의 기저효과로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2년은 2011년의 고용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인 3%대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폭은 2011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임.

김복순·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seesaram@kli.re.kr / 02-3775-5579
 seongjm@kli.re.kr / 02-3775-5580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김승택 / 편집인: 장흥근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